

IV. 공동건립의 기대역할

과학문화관의 건립을 국가나 시도, 또는 대학이나 기업체가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전인과학문화교육의 정신은 과학관을 방문할 사람들, 운영할 사람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전국의 장애우들의 공동 노력으로 계획되고 시작되어 건립 운영될 것이 바람직하며 의미 있게 계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한다.

1. 공동건립의 의미와 의의

학생들이 더불어 즐겁게 놀기, 동료 간 서로 인도하는 공부, 교사들의 공동지도, 교사와 학생의 공동 학습 등이 의미 있는 것과 같이, 또한 한 학교가 학생, 교사, 교장, 행정 담당자, 학부모, 지역의 주민과 인사들의 협조가 중요한 것과 같이[1, 5, 14, 18], 과학관의 건립과 운영을 기본적으로 여러 관련 범주의 사람들이 함께 협조하여 수행하는 것을 공동 건립이라고 하면 이것은 전인과학문화교육 지향 정신에 합당한 방략이라고 하겠다.

과학관 공동건립에 관여할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는 과학문화관이 건립되면 우선적으로 방문할 과학관 이웃의 초중고대학 학생들, 전국의 장애학생들, 연수할 교사들, 운영할 교수와 대학원생 및 관련 전문가들이지만, 이들의 교육에 관계가 있는 학부모와 주민 그리고 책임이 있는 공공 기관과 국가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방략은 지금까지 과학관의 건립이 국가에서 수천억 원, 시도에서 수백억 원, 기업인이나 특정인의 주관으로 건립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요 방문할 사람들의 필요나 도움 보다는 기관과 기업체의 목적에 의함으로 정말로 활용할 사람들이 원하는 과학관을 원하는 방침으로 건립되고 운영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2. 공동건립의 과정과 방략

뜻이 있는 사람들, 즉, 학생, 교사, 교수, 전문가,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과 기금 모금을 시작하며 공공 기관과 기업체에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110 캐스최 창파(滄波) 국제학술제

3. 공동건립의 운영과 기대 역할

일반 학생뿐 아니라, 특히 장애 학생을 비롯하여 학습 지진, 부진 학생 등 과학 활동에서 소외 되었던 학생들에게 과학문화관의 방문 기회를 줌으로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과 비록 초보 수준이라 하더라도 과학 지식의 이해와 탐구 활동을 통해 전인과학문화 소양 함양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장애가 있는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장애 학생에게 체험 활동을 통한 과학 탐구의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비뚤어진 학생에게 바른 길을, 지력이 부족하여 무엇이던 잘 모르는 학생에게 암과 지혜를, 그리하여 학부모와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것을 기대한다.